

도, 국가 핵심과제·전북 7대 공약 연계

전북 미래 성장동력 확보 ‘속도’

전주 하계올림픽부터 새만금 RE100까지 ‘메가비전’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 국정과제와 전북 7대 지역공약을 면밀하게 연계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3일 자료를 통해 전북 관련 국정과제와 연계해 전북발전계획을 메가 비전 중심으로 발표하고 전북 7대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AI·첨단산업, 새만금 개발, 농생명 산업, 교통·물류 인프라, 공공의료, 문화·관광 등 굵직한 국가사업들이 전북에서 본격화되며, 도가 제시한 전략 비전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전북 연계 국정과제에는 △초격차 AI 선도기술과 인재 확보와 연계한 퍼지컬 AI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구축 △첨단 재생의료 특화 전북 바이오 허브 조성, 지리산권 천연물 바이오소재 산업클러스터 조성 △하이퍼튜브 종합 시험센터 조기 구축 △새만금 글로벌 메가센트릭스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선도모델 구축, 전북 서남권 RE100 산업단지 확대 조성 △전주권 광역 교통망 인프라 구축 △서해안선(새만금·목포)건설로 서해안권 철도 연결, 전라선 고속화 철도 건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백제

왕궁 역사문화벨트와 후백제 고도 복원 △전주 하계올림픽 관련 등이 포함됐다.

7대 지역 공약으로 첫째,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K-컬처 메가 육성으로 글로벌 문화·관광 중심지를 조성한다.

둘째, AI 융복합산업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테스트 베드로 도약한다.

셋째, 풍력·태양광·조력에 기반한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SOC를 조기에 완성한다.

넷째, 첨단 정밀농업·푸드테크·치유농업을 중심으로 농생명산업 수도를 육성한다.

다섯째, 금융특화도시 조성과 공공의대 신설로 청년과 의료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한다.

여섯째, 사통팔달 교통·물류 인프라로 전북광역권 경제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끝으로, 재생에너지 확산과 자연·생명 조화를 통한 탄소중립 미래도시를 만든다는 것으로 돼 있다.

전북자치도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메가비전’을 중심으로 전북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국협회의 내부 검토를 거쳐 실행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부 건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반영된 전북의 핵심과제는 도가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지역 현안과 전략과제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해 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AI 에이전트·SaaS 기반 혁신 시급”

‘AI G3 강국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 서

글로벌 AI 서비스 시장이 연평균 36%씩 성장해 오는 2029년 약 274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국내 산업별 평균 디지털 전환율은 19.8%에 불과해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고 강조했다.

강용성 와이즈넷 대표는 “오픈AI,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가 이미 AI 에이전트 SaaS 시장에 돌입했다”며 “한국도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한 최적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80%는 여전히 디지털 전환 준비 단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보건의료·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전환 속도가 특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률도 29%에 불과해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요구됐다.

토론에 나선 송지훈 포시에스 전무는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테스트하는데 재정 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비용·인력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수 카이스트 부총장은 “대학을 AI 인재 양성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해야 한다”며 교육과 산업 연계를 주문했다.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사진)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했다.

포럼은 AI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와 SaaS(Software as a Service) 전환의 필요성, 그리고 행정·산업 현장의 ‘AX(Agent eXperience) 대전환’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송호철 다존비즈온 대표는 “현재 행정·업무 시스템은 플랫폼이 분산돼 사용자가 직접 검색·정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개별 접속·검색 과정을 자동화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

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R&D 확대, AI 에이전트 SaaS 특화 바우처 신설, 정부 주도 도입 사업 발주 등을 제안하며 “AI 활용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K-POP 아카데미 시범사업 최종 참가자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응원”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을 위한 ‘K-POP 아카데미 시범사업’으로 전북을 찾은 9개국 20여명의 최종 참가자들이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김관영 도지사와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AI 시대. 새 사회제도·성장동력으로 변곡점 만들자”

전북 백년포럼...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 초청 강연

디지털 전환과 문명 대전환의 시대, ‘지식은 어떻게 권력과 민중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이 13일 마련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날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AI 시대와 지식리더십, 파레오로스’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36강을 개최했다.

이번 백년포럼에는 임문영 대표(미래전환)가 초청돼 연사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저서 ‘파레오로스’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기 속에서 지식, 권력, 민중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지식 리더십의 방향을 제시했다.

임 대표는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축이 우리 사회를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민중은 예민해져 진실은 오히려 분간하기가 어려워 졌다”면서 “전환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새로운 사회제도와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역사에서 ‘혁명적 변화’ = 지식 X (권력 + 민중)이라는 공식이 작동해 왔다”면서 “격변의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파레오로스의 지혜

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파레오로스’는 고대 로마의 삼두전차에서 명예를 하지 않은 채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던 말을 의미하는데, 이는 권력, 민중과 함께하되 복속되지 않고 방향을 조율하는 지식의 비유라고 임 대표는 설명했다.

임 대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앞서는 지금, 지식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의 것이며, 누구나 지식인이 될 수 있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혁신을 담당한 지식, 혁신에 대한 투자를 강제할 권력, 혁신의 성과를 향유할 민중이 하나로 결속해야 새로운 역사적 변곡점을 만

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전환의 시기”라고 제언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지식의 시대, 전북 백년포럼이 지역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통찰의 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재향군인회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협력방안 모색

전주시의회, 간담회 개최

전주시의회는 지난 12일 남관우 의장이 전주시재향군인회 김범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 8명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안보 의식 함양과 재향군인회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 의장과 김 회장은 국가안보 의식 함양과 참전 유공자 예우 확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강화 등 재향군인회의 주요 활

동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재향군인회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권희성 기자

군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 취소 결정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시민 여론과 지역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올해 예정된 공무국외연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시의회의는 올해 하반기 국외연수를 통해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시 재정 부담과 시급한 지역 현안을 감안해 계획을 재검토하여 취소를 결정했다. 국외연수 편성 예산을 민생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활용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군산시의회의는 이번 결정이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예산 절감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회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절감된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민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배정하도록 집행부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사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